

제3차 INWEPF 운영위원회의 참가

조진훈

(jjhjo@ekr.or.kr)

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

제3차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 (INWEPF: 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 Ecosystem in Paddy Fields) 운영위원회의가 지난 9월 17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열렸다. 본 회의는 ICID 아시아 지역회의에 연이어 개최되어 참석자들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모두 15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58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참가하였고 작년과 같이 이집트 대표도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봉훈 농림부 기반정비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박병태 사무관, 박상현 전 의령지사장, 그리고 필자 등 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2004년 1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출범된 INWEPF는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FAO, ICID 등 관련 분야 국제기구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NWEPF는 2003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세계물포럼(WWF3)의 농업장관각료회에서 도출되었던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가난해소”, “지속가능한 물사용” 및 “상호협력”의 세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설립 권고안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재대표인 Thierry Facon의 “논 농업의 현재, 내일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일본 니혼대 Riota Nakamura 교수는 농업용수의 다양한 이용성과 참여물 관리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다.

오후에는 단기 및 장기 액션플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들 목적은 INWEPF의 세 가지 과제인 빈곤타파와 식량안보, 지속적 물 사용 및 파트너십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다음의 세 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WG1: 논의 다기능에 관한 워킹그룹 (물에 대한 접근, 생태관리, 물사용 효율성, 참여관계관리)
- WG2: 비전,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정보의 전파 (비전개발, 정책개발, 연구개발, 정보전파, INWEPF 홍보)
- WG3: 논의 경제적 가치평가 (논의 다기능성에 대한 경제성 평가, 논의 부가가치 개발)

둘째 날은 현장견학으로서 오전에는 말라카 지역의 벼농사 지역 답사하였으며, 오후에는 푸트라자야 행정신도시를 견학하였다. 벼농사 지역이라지만 작황이나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곳의 영농 시스템이 얼마나 불량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행정신도시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과 주변 경관조성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신도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형태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중요한 3차 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전년도 개최국가 대표의 자격으로 이봉훈 단장이 2005-2006년도 INWEPF 활동내역을 보고함으로써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나카조 일본 대표가 WWF4 참가 및 활동내역을 보고하였으며, 일본 물포럼 대표인 노리코 야마구치의 아시아-태평양 물포럼 소개와 Thierry Facon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FAO 활동 소개 등이 이어졌다.

워크숍 후속조치로서 세 개의 WG에 대하여 참여 국가 및 의장국을 결정하였으며, 한국은 3개 워킹그룹에 모두 참여하며 WG2의 의장국을 맡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은 각각 WG1과 WG2를 주관기로 하였다. TOR 논의과정에서 INWEPF 참가국가의 국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과 담당 기구 및 담당자를 명확히 할 것을 한국이 제의하였으며, 2007년도 워크숍은 한국에서 개최하며 연이어 태국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의 및 워킹그룹 발표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자원하여 제5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년 들어 불과 3년차에 들어서는 INWEPF이지만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참가국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함으로써 INWEPF가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도록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INWEPF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